

것이고, 또 개인적인 연구조사도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.

임부의 섭생과 분만에 관한 조사연구

대한간호, Vol. 1, No. 6, pp. 127-135, 1971.

차 정 순

1970년 1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만 1년 사이에 충청북도 진천모자보건센터에서 입원 분만한 임산부 총 226명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초산, 경산별 월별 입원실태에 있어서 산모의 월별입원실태를 보면 9월에 24명(10.6%)으로 수위를 차지하고, 8월과 11월에는 각각 23명(10.2%)으로 차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6월에는 22명(9.7%), 3월에는 20명(8.9%)의 순위이며, 8, 9, 10, 11월에 비해 4, 5월에는 하위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. 8, 9, 10, 11월에 분만수가 많은 것을 볼 때 1, 2, 12월에 각각 임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.

2. 결혼년령별분포에 있어서 20~21세군이 143명(63.3%)으로 최다수를 차지하고, 15~19세의 년소군이 33명(14.6%)으로 하위였다. 여성의 결혼연령이 25~29세군 50명(22.1%)보다 20~24세군이 143명(63.3%)에서 더 높은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.

3. 임산부연령별 입원자실태를 분류하여 보면 25~29세군이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20~24세군이 64명(28.3%)이며, 19세이하군이 4명(1.8%)으로 가장 낮은 율을 보였다.

4. 임산부 총대상자 중 임산부 학력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졸업자가 131명(57.9%)으로 수위이며, 중학졸업자는 44명(19.5%)으로 차위를 차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31명(13.7%)의 순위이다. 교육정도별비교는 교육미필자가 20명(8.9%)의 결과를 나타낸 것은 농촌생활의 빈곤한 이유로 본다.

5. 배우자의 직업별을 보면 농업이 59명(26.1%)으로 가장 많은 수위를 차지하고, 상업은 차위로 55명(24.3%)이며, 일반공무원은 44명(19.5%), 군인은 16명(7.1%), 공업은 15명(6.6%), 교직은 14명(6.2%)의 순위이며, 회사원은 6명(2.7%)의 가장 낮은 하위였다. 농촌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농업이 수위이며 무직은 고령자로 17명(7.5%)이었다.

6. 임신회수를 보면 1회 임신이 109명(48.2%)으로 가장 많고, 4회 임신이 25명(11.2%)으로 임신회수의 증가에 따라 저하되는 형태이나, 9회 임신이 3명(1.3%)으로 나타난 것은 농촌의 실정으로 보아 가족계획이 고령층에는 실시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.

7. 임신중 수진회수에 있어서는 1회에 그친 수진자는 107명(47.4%)으로 가장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임신월수가 많아질수록 임부내방이 낮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. <제5표>에 있어 종합하여 보면 본모자보건센터의 산전진찰 수진자중 반수이상의 임부가 분만시기가 임박하여 수진하고 있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. 이같은 현상은 이상의 조기발견, 산전섭생, 완전한 분만준비, 올바른 육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상담회수가 충분치 못하므로 임신중 수진을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.

8. 임신과 수면에 있어서는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임부는 120명(53.1%)으로 가장 많고,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임부는 80명(35.4%), 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임부는 20명(8.8%)이며, 6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임부는 6명(2.8%)으로 가장 적었다.

9. 임신중 육체적 운동에 있어서는 4시간이 110명(48.7%)으로서 가장 많았고, 3시간이 60명(26.5%), 2시간이 30명(13.3%)이며, 5시간이 26명(11.5%)으로 가장 적었다. 4시간의 육체적 운동이 110명(48.7%)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도회지에 비해 농촌의 바쁜 실정임을 알려 준다.

10. 임신중 정신적 動靜(讀書)에 있어서는 1시간의 독서를 하는 임부는 140명(61.9%)으로 수위이며, 다음은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임부는 60명(26.6%)으로 차위이고, 2시간의 독서를 하는 임부는 26명(11.5%)으로 하위이었다.

11. 임신중 복대 사용에 있어서는 복대를 사용하지 않음이 200명(88.5%)으로 수위이며, 다음은 6개월에서 복대사용이 18명(8.0%)으로 차위이고, 5개월에서 복대사용이 7명(3.1%), 7개월에서 복대 사용이 1명(0.4%)으로 하위 이었다.

12. 임부의 영양상태에 있어서는 태아건강을 위해 골고루 취한다는 임부가 186명(82.3%)으로 가장 많았고, 임신전과 마찬가지로 임부가 25명(11.1%)으로서 차위이며, 입에 맞는 음식만 취한다는 임부는 15명(6.6%)으로 하위를 보이고 있다.

13. 임부 자신의 불안감에 있어서는 잘 모른다는 146명(64.6%)으로 가장 많았고, 마음이 불안하며 우울해진다는 임부가 50명(22.1%), 공포감이 든다는 30명(13.3%)으로서 하위이었다.

14. 이전의 분만장소에 있어서는 가정분만이 90명(77.6%)으로서 고율이며, 병원 분만이 20명(17.2%)으로 저율이었다.

15. 이전의 분만개조에 있어서는 분만자 177명 중 무자격자에게서 개조한 분만자가 65명(55.2%)으로서 최고율을 보이며, 조산사에게서 개조한 분만자가 31명(26.7%), 의사에게서 개조한 분만자가 21명(18.1%)의 순위이다.

16. 출산 간격에 있어서는 3년의 출산 간격이 80명(68.9%)으로서 최다이며, 2년의 출산 간격으로 28명(24.2%)으로서 차위이었다.

17. 이전 출산에 있어서는 경산자 총 117명중 정기산이 100명(86.2%)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, 유산이 11명(8.6%), 조산이 6명(5.2%)이었다.

18. 태 위 :

두위가 222명(98.2%)으로서 가장 많았으며, 돈위는 4명(1.8%)으로 낮은 저율이었다.

태향 :

초산부는 109명(48.7%), 경산부는 117명(51.3%)으로 비례하였다.

19. 신생아의 성별로 본 태위 및 태향에 있어서는 총 226명의 신생아 중 남아가 125명(55.3%), 여아가 101명(44.7%)이며, 초산과 경산별로 본 성별은 초산부에 비해 경산부가 남아의 출산율을 많이 보였다. 즉 남아출산율이 여아보다 25명(11.1%)으로 높다.

20. 신생아의 체중동태에 있어서는 체중 3,000~3,499g 군이 남아 53명(23.4%), 여아 56명(24.8%)으로 수위를 차지하고, 차위로는 체중 3,500~3,999g 군이 남아 51명(22.6%), 여아 28명(12.4%)이었다. 4,000g 이상군(거대아)이 남아 13명(5.8%), 여아 5명(2.2%)이다. 이로 인하여 분만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모아건강을 위하여 산전 지도가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.

일 농촌지역 가족계획사업 요구에 관한 연구

최신의학 21권 3호, 1972.

양재모 · 김모임

이상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인의 인구, 사회, 및 보건학적 견지에서 가족계획을 꼭 해야 할 제1 우선순위대상중 과반수 이상이 사용한 적이 없거나,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이 각 가정의 가족계획 요구를 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치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.

효율적 가족계획 사업을 운영하여 인구증가 문제에 다소나마 더 기여하기 위하여는 가족계획 계몽원 및 지도원에게 가족계획 우선순위 대상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하여 우선순위별 가족계획 사업을 하여 피임을 꼭 해야 할 제1우선순위 대상부인은 모두 피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으며, 비실천자는 모두가 제3순위 대상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고 수시로 대상부인의 인구, 사회, 경제 및 보건학적 여건을 재 사정하여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가족계획에 관한 계몽교육 및 시술 활동이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.

일부도시 및 농촌지역의 가족계획 실천율 조사

중앙의학 24권 1호, 1973.

신덕화 · 문정순